



농수산물 수출

Zoom In 91호

I

물러지기 쉬운 블루베리, 배로 수출해도 한 달 이상 신선



II

국산 배, 사과, 참다래 대만 수출을 위한 현지 조사 실시



III

'21년산 국산 감 베트남 수출을 위한 선과장 및 재배농가 목록 송부



농수산물 수출 Zoom In 91호 2021. 10. 29(금)

‘21.9.30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81.4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9.5% 1,080.0백만불	12.8% 5,110.0백만불	18.3% 1,954.0백만불
+ 인삼류, 김치, 포도, 돼지고기 - 닭고기, 버섯류, 파프리카	+ 과자류, 커피조제품, 음료, 소스류 - 연초류, 소주, 맥주, 생우유	+ 김, 참치, 굴, 대구, 명태 - 미역, 고등어, 봉장어, 바지락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 1,202.6백만불(8.5%)	물류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건강식, 가정 간편식 중심 수출 상승세 유지	▲ 과자류(13.3%), 소스류(18.6%) ▲ 해조류(8.9%), 어류(26.7%) ▼ 음료(△8.5%), 라면(△10.2%)
중국 1,412.9백만불(23.4%)	소비 장려 정책과 연휴철 맞이 농식품 선물 수요 증가로 수출 상승폭 확대	▲ 김(46.1%), 과자류(33.8%) ▲ 음료(52.7%), 인삼류(30.5%) ▼ 라면(△11.0%), 소스류(△4.2%)
신남방 (ASEAN + 인도) 1,679.5백만불(19.9%)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커피, 음료, 인삼류 등 간편식·건강식 수출 강세	▲ 참치(20.2%), 음료(7.9%) ▲ 라면(1.7%), 커피조제품(22.4%) ▼ 장류(△14.8%), 닭고기(△27.7%)
일본 1,508.8백만불(3.4%↑)	라면, 김치, 소스류, 식초 등 가정식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	▲ 김치(16.4%), 참치(42.2%) ▲ 식초(42.2%), 라면(27.3%) ▼ 김(△16.8%), 주류(△12.4%)
EU + 영국 502.4백만불(19.0%↑)	김치, 라면 등 가정식과 더불어 김, 참치 수출 호조로 수출 성장세 지속	▲ 참치(18.0%), 라면(27.5%) ▲ 김(58.5%), 소스류(57.6%) ▼ 커피(△19.4%), 당류(△38.9%)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91호 2021. 10. 29(금)

품목별 이슈

* 실적 : '21.1.1 ~ 9.30

□ 인삼

- (미국, 25.7, 49.4↑) 아마존 등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 진입, 인기 증가세에 일반 식품 바 이어까지 유통 확대 추세
- (중국, 71.4, 30.5↑) 건강식품 관심 증가, 해외 면세 구매 제약, 중추절(추석) 대비 현지 재고 수요 증가
- (일본 22.3, 1.7↑) 수출 부진했던 인삼음료 현재 재고 소진, 홍삼정과 홍삼조제품 인기가 지속 증가하며 수출 상승세 전환

182.3백만불(22.9%)

주요 수출국 : 중국(71.4백만불, 30.5%), 미국(25.7, 49.4%), 일본(22.3, 1.7%), 베트남(17.9, 32.5%), 홍콩(17.1, △1.4%), 대만(13.2, 9.2%)

□ 라면

- (일본 46.9, 27.3↑) 매운맛 라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 매운맛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실적 증가
- (EU+영국 53.4, 27.5↑) 즉석식품 시장 및 에스닉푸드 수요 확대에 따라 아시아 식품 전문점뿐만 아니라 현지 대형 유통망 등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음

481.6백만불(5.5%)

주요 수출국 : 중국(103.9, △11.0%), 미국(55.3, △10.2%), 일본(46.9, 27.3%), 대만(23.9, 23.9%), 태국(20.6, △0.8%), 말레이시아(19.0, 27.0%)

□ 소스류

- (미국 63.2, 18.6↑) 현지 젊은층의 한식 선호도 증가와 더불어 핫소스 트렌드가 지속됨에 따라 고추장(10.8, 10.6↑)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 견인
- (일본 23.6, 34.4↑) 매운맛에 대한 수요 증가로 매운맛 소스를 중심으로 현지 판로 확대
- (EU+영국 13.5, 57.6↑) 에스닉푸드 트렌드 지속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건강한 한식에 대한 관심 증대, 현지 음식에 응용할 수 있는 소스류 수출 증가

269.2백만불(16.5%)

주요 수출국 : 미국(63.2, 18.6%), 중국(43.4, △4.2%), 러시아(24.9, 25.0%), 일본(23.6, 34.4%), 대만(11.0, 39.5%), 네덜란드(3.6, 47.3%)

□ 김

- (미국, 109.1, 5.1↑) 메이저 수출업체 발주량 증대로 대미 김 수출 증가 가속
- (중국, 106.6, 46.1↑) 중국 내 마른김 가공산업 발전에 따른 마른김 수요 지속 확대로 수출 증가세
- (일본, 89.3, △16.8) '21년 대일 김 쿼터 계약 물량 수출 이행에 따라 대일 김 수출 하락폭 완화

507.1백만불(13.1%)

주요 수출국 : 미국(109.1, 5.1%), 중국(106.6, 46.1%), 일본(89.3, △16.8%), 러시아(32.9, 63.3%), 태국(29.1, △4.7%), 대만(20.2, 1.6%)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물러지기 쉬운 블루베리, 배로 수출해도 한 달 이상 신선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한국산 블루베리의 말레이시아 선박 수출 성공에 이어 올해는 선박 운송을 할 때 신선도 유지 기간을 기존 3주에서 4주 이상, 1주 더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블루베리는 수확 시기가 장마기간과 겹쳐 쉽게 물러지므로 국내 유통뿐 아니라, 장기 운송이 쉽지 않은 과일 품목이다.

지난해 유향 패드 등을 활용한 블루베리 선박 수출 기술을 개발했지만 최근 수출 컨테이너의 수급 불안정과 코로나19로 항만 하역 작업이 지연되면서 3주 이상 장기 저장이 가능한 신선도 유지 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물러짐, 탈색 등 선박 수출을 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을 고려해 수확 직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선도 유지기술을 적용했다.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확 후 되도록 빨리 과일의 온도를 낮추고 신선도 유지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동식 이산화탄소·이산화염소 동시복합 처리장치를 활용했다. 이 기술은 수확 후 예비냉장과 선별을 거친 블루베리를 동시복합 처리가 가능한 장소로 옮기지 않고 생산지의 저온 탑차 안에서 바로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염소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이산화염소를 처리한 뒤에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동안 유향패드 등 신선도 유지제를 따로 넣지 않아도 된다.

선박 운송 기간 연장은 장거리 수송이 어려운 신선 농산물을 주요 수출국인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한국산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수출 농가에 지원되던 물류비가 2024년 중단될 상황 이어서 수출 희망 농가의 물류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 수출은 항공 수출 대비 물류비를 1/4에서 1/6까지 절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이번 블루베리 시범 수출은 수확장소에서 현지 시장 도착까지 4주 동안 체계화된 신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장기간 선박 수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품목별 특성에 맞는 포장 기술과 부패 억제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유통·수출 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식 이산화염소·이산화탄소 동시복합 처리장치



이동식 동시복합처리(4°C)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국산 배, 사과, 참다래 대만 수출을 위한
현지 조사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1년산 국산 배, 사과,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선과장 및 과수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만 측이 현지조사 권한을 우리 측에 위임함에 따라 우리 검역관이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부적합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선과장 및 과수원의 청결 상태 미흡 등이 발견되어 현지 시정조치 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현지 조사 결과를 대만측에 제공하여 우리 수출단지가 대만 검역 요건을 잘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우리 농산물의 대만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수출 검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1년산 국산 감 베트남 수출을 위한 선
과장 및 재배농가 목록 송부**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감의 대 베트남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21년도 베트남 수출에 참여할 수출 선과장 및 재배농가, 소독처리회사 최종 목록을 베트남측에 송부하였다. 검역본부는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산 농산물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신속한 수출 검역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역본부는 베트남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재 국산 참외에 대한 검역 협상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